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12월 25일 (제118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새로운 시작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가 시작되듯, 이 땅의 인생이 끝나면 영생의 길이 열리듯, 끝은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알람이다.

2022년 끝에 왔음은 2023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나는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계획했다. 2023년부터는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3시로 옮겨 은사 집회로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제2의 부흥을 이루려고 한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물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맞다. 불가능을 이루려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야 한다. 4부 예배에 성전을 가득 채우려면 뭔가 시도해야 한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변화가 두려운가? 그렇다면 이대로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야지!

변화는 기회다. 변화(change)와 기회(chance)는 스펠링 하나 차이이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변화가 기회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후에는 새신자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야겠다.’, ‘오후 예배에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야겠다.’ 생각하면 움직이게 되고, 그런 자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린다.

2022년, 우리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고자 했다. 그것은 2022년에 국한된 슬로건이 아니다. 평생 가슴에 둘 표어다. 2023년,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되려면 전심전력하여 기도하고, 전심전력하여 말씀을 상고해야 하며, 전심전력하여 전도하고, 전심전력하여 헌신해야 한다. 대충이 아니라 사력을 다할 때 감히 마귀와 그의 쫓개들이 넘볼 수 없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금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와 같다. 3년간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장기 침체에 빠져있다. 이제는 일어나 두루 파고 거름을 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부흥의 바람, 예수 바람이 다시 거세게 일어나야 한다.

다시 시작이다. 2023년에는 부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자.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교육부서에서 준비한 성극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며 은혜를 나누었다.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교육부서 전체가 매달려 온 힘을 다해 크리스마스 성극을 준비하곤 했다. 그런데 단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준비하는 구성원들에게는 집단적 노력이 집중되어 넘치는 수고를 투여하는 일이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단지 관객의 위치에 놓이는 느낌이었다. 크리스마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총력전도할 것을 명령하셨다.

지난주 월요일 아침, 목사님은 서울, 인천의 교역자들을 노랑진교육관으로 불러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활활 불을 지피셨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급히 소집한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총동원을 선포해놓았는데 만일 그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없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도, 나도, 여러분도 모두 망신입니다. 밤잠이 오지 않더군요.

오늘 여러분들 쉬는 날이라는 거 잘 압니

며 함께 눈물로 기도했지요. 그리고 매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집중한 결과 마지막 날에는 차고 넘치는 역사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후로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집회를 준비하는 자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만 가면 저절로 사람들이 모일 거라 착각합니다. 천천만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요6:65). 나부



Merry Christmas!

음부(陰府)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일 3:8)

야성있는
소망이가 되지말라!

이호석 목사

서로 축하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하루를 보내는 게 뭐 어때냐 반문하겠지만, 목사님은 코로나 이전부터 크리스마스 전도집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곤 했다. “우리가 1991년 메인스타디움집회를 연 기하면서 크리스마스 전도집회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하루 세 번 진행하며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있었잖니.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우리 구원자로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어야 해. 장소만 열린다면 다시 올림픽공원에서 전도집회를 열자!”

그러나 장소 잡는 일도 여의찮았고, 연이어 코로나 사태가 터져 기회도 없었다. 올해 다시 올림픽공원을 타진했지만, 서울 전역에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목사님은 크리스마스이자 올해 마지막 주일을 총동원주일로 선포하시고

다. 그러나 전쟁이 터졌는데 휴일이 어딴 습니까?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을 비롯한 모든 지교회도 이날은 목사부터 모두가 전도에 총력을 다하여 예배마다 모두 전을 채워야 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니까 잘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집회를 항상 반면교사로, 거울로 삼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최대교회 목사라는 카니발 목사가 배설한 집회에 갔다가 정말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교인이 2만 명이라며 그들만 와도 집회 장소는 차고도 남는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 넓은 체육관이 바닥도 다 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영영 우는 이현숙 선교사를 달래가

터, 여러분 각자부터 한 사람씩 데려오라는 각오로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변화하기 싫으면 현실에 만족하고 사세요. 그러나 나는 변화하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 심기일전해서 새해부터는 오후 2시 예배를 3시로 옮겨 4부 예배를 채우고 더욱 전도에 총력을 다합시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주 앞에서 뭐라 말할 겁니까? 모두가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날을 온 세상에 전하는 예수중심교단이 됩시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송구영신예배

2022. 12. 31(토) 저녁 9시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히9:27)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

하루가 멀다고 우리 성도들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그 누구도 세월을 거스를 자가 없음을 실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고이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왕도 죽고, 영웅도 죽고, 한 시대를 뒤엎은 목사도 죽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죽음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한(壽限)을 두셨고, 수한이 차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 3:19).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히9:27)라는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사후를 준비하는 자다

문제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세상이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하십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는 자입니다. 음식 맛을 보고 압니까? 먹어보니 알지 않습니까? 소리를 뵙니까? 들음으로 알지요. 손에 대장균은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봐서 믿습니까? 역사책에서 보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니까 믿는 것 아닙니까? 죽음 후의 세상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선전들이 알려주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존체(永存體)이기 때문입니다. 1차 죽음인 육신을 벗어던지고 나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요5:29).

그 기준은 딱 하나,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비자가 있어야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미국 법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명예나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히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 5:31~32)고 하셨기에 죄 많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가 넉넉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福音),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다가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하면 귀신이 “몰랐다.”고 말하고 말하는 경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당신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명절 때 비행기 표나 기차표나 버스표를 미리 예매해둔 사람은 제시간에 터미널이나 공항에 가면 고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지.’ 하는 사람은 티켓이 없어 고향에 못 갑니다. 천국행 티켓도 예매해야야 합니다. 그 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믿지.’ 하지 말고 지금 예수를 믿어 천국 티켓을 예매하십시오.

“아 휴 ~ 나 는 아 직



총회장 이초석 목사

우를 뵙니다. 왜 못 들었을까요? 전하는 자가 없으니 못 들

은 겁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겠습니까?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너 혼자 잘 살고, 너 혼자 천국 와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주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딤후 4:2).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요,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제가 천국과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또 결혼식장에서, 장례식장에서, 심지어 목욕탕에서도 때를 가리지 않고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술도 못 끊고, 담배도 피우는 데 어떻게 가요? 나중에 다 끊고 갈게요.” 하시는 분들, 편찮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365일 술을 먹었고, 하루 두 갑 넘게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오니까 자연스레 끊어 집니다. 끊은 다음에 오려고 하면 못 와요. 교회에 와서 끊으세요. 교회는 영적 목욕탕입니다. 기름때든, 묵은 때든 목욕탕에 와서 밀면 깨끗해집니다. 그곳에 가서 비누로 닦아내면 몇십 년 묵은 때도 다 벗겨져서 깨끗한 새사람이 됩니다. 그냥 오세요. 와서 예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지우면 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오늘의 이 결단이 당신의 인생을,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삶을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에 따른 권세가 주어집니다. 마치 총을 지닌 것과 같

은 권세입니다.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가서 죽이듯,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은 후에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세 시간 밖에서 문을 잠가놓고 뜨거운 사우나 안에 있어 보세요. 숨이 막혀 문을 두드리고 난리 칠 겁니다. 지옥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천만 만이올시다. 지옥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마 8:12)’, ‘꺼지지 않는 불못(마 2:41)’, ‘불로서 조금 치듯 하는 곳(막 9:49)’, ‘영원한 멸망의 곳(살후 1:9)’... 그러니 절대 그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곳만은 피해야 합니다.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를 안 믿고 불쌍한 이웃도 돌아보지 않다가 죽은 어느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토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눅 16:24).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할 정도로 지옥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또한 성경은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조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막 9:47~49)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세상으로 향하는 네 눈을 빼고, 세상 것을 움켜쥔 네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고 당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지옥문은 닫히고 천국문이 활짝 열립니다.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예수를 믿어 천국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일생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자

2022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 왔지만, 올 한해는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만큼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전반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3년 가까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고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온전한 일상의 회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옆친 데 댔친 격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패권주의에 의해 세계평화가 위협을 받고, 국제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그리고 고공행진을 하던 집값의 하락으로 인한 자산 가치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비핵화와 평화를 외치던 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을 통하여 안보에 위협을 가해오고, 수출주도 성장을 계속해오던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야의 물러서지 않는 대치와 강성 노조의 계속되는 연대 파업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위기를 감지하고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동단결하여 일어나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은 항상 위기가운데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했던 소중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의병들이 일어나 외적을 물리쳤고, 6.25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던 나라를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내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으며, IMF 위기 가운데서도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다시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마음만 합치면 못할 일이 없는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노사가 역지사지하며 화합을 이루고,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며 품어주어야 합니다. 분쟁하는 나라나 집단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공멸의 길이 아니라 공생과 공존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나라가 힘들 때는 허리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위기 때 필요한 사람은 말꾼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개혁과 변화는 상상이나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야 합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장하고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살리고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기를 기회 삼아 다시 하나가 되어 달려간다면 밝아오는 2023년도는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To Be Succeeded ::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결혼 첫해,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성탄절 성극의 연출을 맡겨주셨다. 배역과 스테프들은 매일 모여 기도하고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던 어느 날, 기도 중 주님께서 남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성탄절을 만들어주렴."

그 순간 남편은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 뜨거운 눈물을 쏟았고,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성극을 만들리라 결단했다. 그 결과 '천국과 지옥'이라는 성극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었다.

그렇다. 하나님의 마음은 크리스마스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병 들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죄 가운데 있던 영혼이 예수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데 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니까(마1:21).

나도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계기가 있었다.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던 중, '하나님, 제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어디 계셨던 거예요?'라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 바로 내 곁에서 나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무척 가슴 아파하시는 마음을 말이다. 그 순간 내 영혼과 육체는 자유를 얻고 치료를 받았다. 그 일로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하기 위한' 십자가로, 또 우리의 질병을 담당기 위해 맞으셨던 그 채찍은 진정 '나를 위한' 것이 되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죄과 고통,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심령과 육체를 일으키셨다. 수가성 여인, 삭개오, 혈루증 여인, 백부장 등 신분과 계층도 각기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일대의 전도자들이 되었다. 우리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다(마28:18~20).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려는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목사님도 이번 성탄절을 총력전도주일로 선포하셨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 주님의 기쁨과 축복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한다.

"Merry Christmas!"

이국진 사모

joyful_jina@hanmail.net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내일을 보며 오늘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의 눈에는 현재의 고난이 보이는가, 내일의 영광이 보이는가? 예수는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에 사울을 통한 어려운 환경에서 견뎌낼 수 있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 결과를 바라며 보이는 과정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뜨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였던 예비된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실 것이다.

우리는 항상 끝이 좋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일의 시작과 과정은 수고롭지만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

로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욥8:7).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의 일에 충성할 때면 간혹 어떤 이들은 오해하여 아부한다고 빈정거리며 조롱한다. 그러나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고, 충성도 중간에 그만두면 그것이 바로 아부임을 기억하자.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더하여 끝까지 충성하라. 물러서지 말라, 타협할 생각도 말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주님만 붙잡라.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히3:14). 또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7:20)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시작을 보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시는 분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25:21)라는 칭찬을 듣도록 끝까지 충성하자.

김상욱 목사



:: 프롬인터넷 ::

예수가 없는 교회

어느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렸다. 문을 하도 세게 두드리니 목사님은 설교하다 말고 말했다.

"누가 좀 나가 보세요."

그래서 한 안내집사가 교회 밖으로 나가보니 술에 만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봐요. 지금 예배 중이라고요. 들어가 시든지, 아니면 돌아가시든지 그러셔야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자 술 취한 사람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말했다.

"내가 만날 사람이 있어서 그래."

"도대체 누구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긴 교회예요.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요?"

"나도 알아, 여기가 교회인지. 그러니까 만나겠다는 거 아냐? 왜? 안 돼?"

"그러니까 누구요?"

안내집사는 계속 반말로 떠들어대는 그 사람에게 조금 짜증이 났다.

"예수라는 사람 만나러 왔다. 만나면 안 되냐고. 그 사람 좀 나오라고 그래."

그러자 이 안내집사의 말이 가관이다.

"이봐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 없으니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어디 와

서 술주정을 부려요? 어서 가요, 어서."

웃을 일이 아니다. 정말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성도가 많다. 교회는 번지르르한 데 예수가 없는 교회, 분명 주일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없는 성도가 많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건물이고, 예수 없는 성도는 그냥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예수가 함께 하시면 거기가 교회이고, 예수와 함께 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란단다.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놀라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말이다.

성탄절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축하해야 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없다. 산타클로스가 예수님 자리에 대신하고 있고, 연인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었다. 선물 받고, 밤새 즐기고, 여행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행사처럼 돼버렸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단 말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1:21).

그대들 덕분이라고

그대들 따뜻한 목화 꽃 숨이불
날 단잠을 재웠고
한여름 모시 적삼 더위를 떨쳤지

그대들은 주님의 선물
날 은혜의 강물에 배 띄워 바다로 나갈 길 열었지
배 안에서 세계로
이 모두 당신들 희생의 뒷받침 기도와
주님의 은혜일뿐이라네

그날 그 시
내 주인 물으신다면
목화 꽃 당신들 덕분이라 말하리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
마다않고 따라온 당신들
그날 그 시에
주 앞에 날 내노시구려
칭찬과 면류관 씌워주시리라

-38년을 함께 해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朋友

:: 성경에서 배운다 ::

광활한 우주를 향해

한때 인류는 태양계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천문학자가 우주에 띄운 ‘허블망원경’으로 눈에 보이는 화성이나 목성이 아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공, 즉 검은 우주를 촬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몇 시간 대여에도 고액을 지불해야 하는 우주망원경으로 고작 검은 허공을 촬영하겠다고 하니 누가 봐도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지요.

그렇게 촬영을 시작한 지 열흘, 과학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수천 개의 아름다운 은하가 찍힌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무한한 우주에 눈뜨게 되었고, 이후 우주에 대해 더욱 깊은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광활한 우주를 향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광대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영의 세계를 믿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에 기댈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비웃음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흔들림 없이 인내하기만 하면 되지요.

갈렙이 눈에 보이는 쉬운 땅이 아닌 과거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친 땅, 헤브론을 향해 반응하고 자원하듯, 다윗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과 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상황, 그분의 은혜를 갈망함에는 놀랍도록 과감하고 끝없이 인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깊게 인내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심전력하였던 일

에 열매를 맺지 못해 마음이 시린 분들이 있다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소망들에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작은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 소망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만 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인내’일 뿐입니다. 우주망원경도 빛을 끌어모을 열흘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내가 마침내 응답으로, 혹은 황홀한 영의 세계로 마주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지금이 값지고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며, 2023년에도 감사와 기쁨함으로 흔들림 없이 전진, 또 전진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괴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9).

하인명 집사
renming@daum.net

:: 빛이 되리라::

내가 주를 찾을 때

얼마 전 주일예배 중에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내 앞에 앉았던 젊은 부부의 일이다. 그들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부였고, 자녀는 유초등부 예배를 따로 드렸다. 간혹 유초등부 예배가 어른 대에 배보다 빨리 끝날 때, 자녀들이 예배 중에 아빠 엄마를 찾으러 다니곤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우였다.

어린 자녀가 넓은 체육관에 들어와서 아빠 엄마를 찾기 시작했고, 아빠 엄마가 먼저 자녀를 발견했다. 하필 자녀는 아빠 엄마가 있는 쪽이 아니라 저 멀리 반대쪽에서 그들을 찾고 헤맸다. 아빠 엄마는 예배 중이라 움직이지는 못하고 손을 이리저리 흔들며 자녀가 본인이 있는 곳을 발견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듯했다. 이미 그들은 그 순간 예배고 뭐고 안중에 없어 보였다. 자기 자녀가 멀리서 헤매며 본인을 찾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모든 신경이 그곳에만 집중되어 있어 보였다.

결국 자녀가 부모를 발견했고 와서 아빠 엄마 사이에 앉았다. 그리고 그제야 부모 마음이 편해 보였다. 이걸 보며 느꼈다. 자녀가 간절히 부모를 찾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실지 말이다. 누가복음에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 봤을 때 아직도 그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랑이 아니겠는가?

얼마 전 예배 중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네 기도 듣고 있는 걸 믿어!’ 그렇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가 듣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믿음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하자.

장명훈 집사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18~19)

흘러간 물로는
절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강을 건넌다면
뗏목을 잘라버려라
-봉우